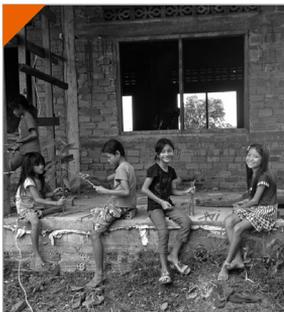


Contents | 목차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독립만세! - 정윤미
- 06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블루안 블루블루 - 이재곤
좋은 아침입니다! - 오성근
- 15 **싸바이다, 라오스**
홍수가 나도 버썬냥 - 박용대
팍세 일기 - 문태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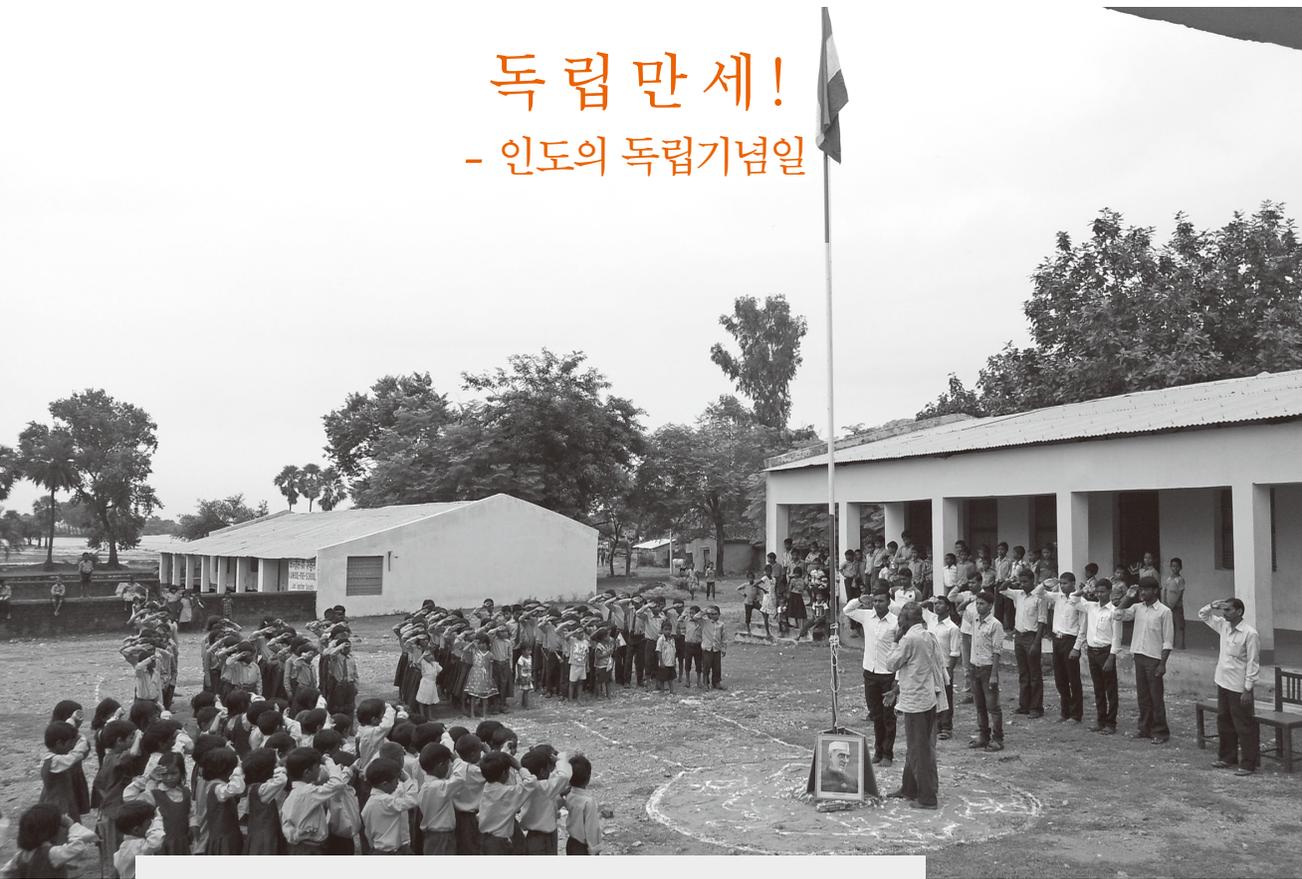
활동터소식

- 23 **해외, 국내 JTS 뉴스**
국내/인도/필리핀/라오스
- 27 **후원인의 소리**
- 28 **나눔회원소식**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넬날 2014. 9. 15 퍼넬이 범륜 만든이 박지나, 김기진 퍼넬터 JTS
도운이 현희연 최경순, 윤미옥, 신인환, 송지홍, 천유라, 윤재승, 김옥희
디자인 · 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137-875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독립 만 세! - 인도의 독립기념일



8월 15일은 인도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이기도 한 이 날은, 인도가 무려 90여 년 동안 계속된 영국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1947년 독립 국가로 탄생한 날입니다.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매년 성대한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식구들이 함께 했던 인도의 독립기념일 행사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함께하고 글쓴이 인도 JTS - 정윤미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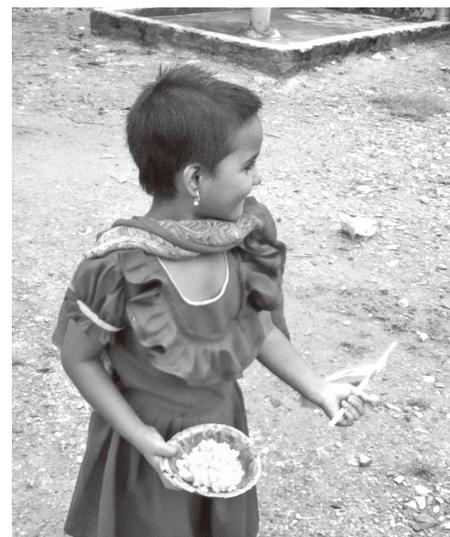
수자타아카데미 인도인 선생님인 파완과 인드라짓이 7월 말부터 인도 독립기념일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시스터, 8월 15일 독립기념일 행사는 올해 어떻게 하나요? 독립 기념일 행사는 각 마을에서 소규모라도 꼭 해야 돼요. 그 날은 중요한 날이에요. 인도인이 행복한 날이에요.”

“질 좋은 미타이를 위해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가서 당부하고 부탁했다.
정말 미타이 준비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수자타아카데미는 본교를 중심으로 동게스와리 15개 마을에 유치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본교에서만 진행했던 독립기념일 행사를, 올해는 인도인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각 마을에서 진행해 보기로 했다. 행사는 15개 마을을 4개로 나누어 까나홀, 망꼬시힐, 드루가프루, 아자드비가 유치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서 나의 임무는 인도 독립기념일 행사에 쓰일 미타이(단과자)를 준비하는 것! 인도에서는 국경일이나 뿌자(축제)기간에 미타이를 나눠 먹는 풍습이 있는데, 미타이를 준비해서 당일 새벽 동게스와리 각 유치원에 배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조금이라도 맛있고 좋은 미타이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가격도 흥정하고, 질 좋은 미타이를 사기 위해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가서 당부하고 부탁했다. 정말 미타이 준비에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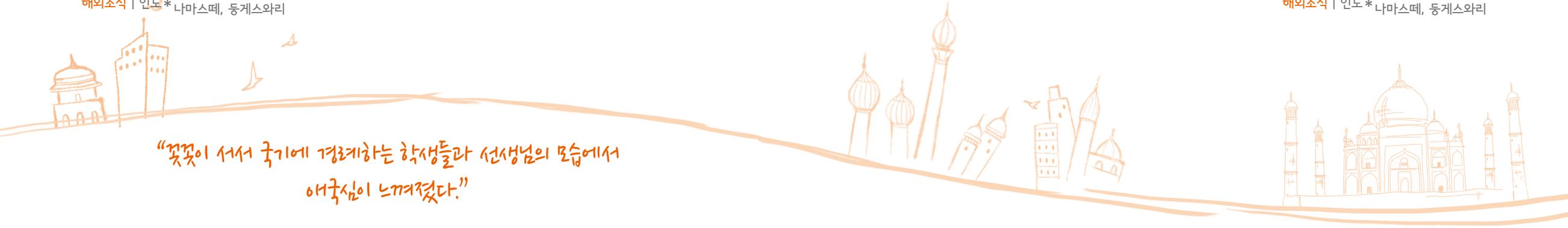
각 마을 담당 선생님들도 며칠 전부터 유치원 대청소를 하고, 행사에 쓸



미타이를 들고 행사에 참석한 아이



자전거로 미타이를 옮기는 프라모드 선생님



“꽃꽂이 서서 국기에 경례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모습에서 애국심이 느껴졌다.”

꽃도 따고, 이것 저것 필요한 물품을 본교에서 챙겨가기도 했다. 어떤 선생님은 새벽에 하는 다른 일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나와서 행사 준비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마침내 행사 당일! 우리 선생님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행사를 준비하고 새벽에 도착할 미타이만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맑소새! 전 날 비가 오는 바람에 흙으로 다져 놓은 도로가 진창이 되어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트럭으로 한꺼번에 각 유치원에 배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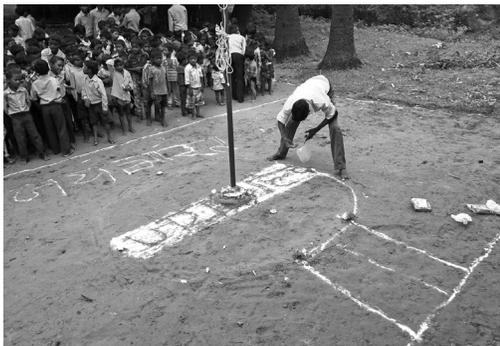
상황이 전해지자 새벽같이 행사를 준비하러 본교에 와 있던 프라모드 선생님이 자기 마을은 본인이 자전거로 가져가겠다고 나섰다. 자전거에 바구니 두 개를 매달고는 아무 걱정 말라며 아무지게 나아가간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그렇게 선생님을 보내고 나머지 유치원을 향해 출발했다. 유치원에서는 인도 국기 세우기가 한창이었고, 색색의 가루가 땅 위에 꽃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한국인 활동가들이 유치원 별로 나눠서 참석하고, 학생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인 가운데 4개 유치원에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대체 어디에서 구해왔는지 아이들이 다들 조그만 국기를 손에 들고 열심히 흔든다. 꽃꽂이 서서 국기에 경례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의 모습에서 애국심이 느껴졌다.

독립기념일에 대한 선생님들의 연설을 듣고 미타이도 받아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9학년 데몬띠라는 여학생이 와서 이야기 한다. “시스터, 인도 독립기념일을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동시에 네 곳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선생님들과 소통해야 할 일도 많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확인 할 사항도 많았지만, 선생님들의 제안과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된 멋진 행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독립기념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거운 축제처럼 대하는 인도인들의 태도였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도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독립기념일에 행복해하는 인도인들을 보고 있으니 ‘오늘은 우리나라도 광복절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몇몇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국의 광복절을 알고서 축하의 말을 건네왔다. 멀리 인도에서 우리나라의 광복과 독립을 축하하는 마음을 내 본다. “인도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대한 독립 만세!”



색색의 가루로 그린 인도 국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학생들

시도 때도 없이 학교를 청소하는 학생들



블루안 블루블루

- 주민이 들려주는 블루안 마을 이야기

다물록군(郡) 안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리(里) 정도 되는 블루안(Buluan) 마을이 있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했을 때, 점심 쉬는 시간에, 학교 가기 전에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학교 곳곳에는 정원도 소담스럽게 잘 꾸며놓았다. 2010년 학생 4명으로 시작한 이곳 블루안 학교는, 지금은 학생수가 158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이재곤 활동가

마을 리더 '도동'이 말하는 블루안 마을

풀랑잇(Polangit) 강을 따라 있는 마을들과 JTS가 지원한 다물록 군의 마을 대부분이 그랬듯이, 블루안 마을 역시 예전엔 민다나오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마을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마을 가구 수가 열댓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분쟁이 심해 여기에 터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블루안 마을의 규모는 85가구에 이르렀고, 현재도 계속 인구가 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이 성장하게 되었는지, 다물록 군의 코디네이터 제시의 도움을 받아 블루안 마을의 젊은 리더 '도동(Dodong)'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블루안의 젊은 리더, 도동

Q. 블루안 마을은 어떻게 생겼나요?

처음 마을에는 13가구 남짓이 살았었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마을의 오래전 역사를 알기란 사실상 힘들다. 실제로는 1996년에 마을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아도 된다. 처음에는 대부분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집을 지어 사는 정도로 시작했다. 왜냐하면 분쟁이 끊이지 않아서 정착하고 살기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역을 '무인지대(No man's land)'라고 부를 정도였다. 어떠한 행정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전쟁이 나면 근처 마을인 리파스(Lipas)로 피신을 가야 했다.

인터뷰 통역을 맡아 준 코디네이터 제시 (오른쪽)



Q.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가 정착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2000년 이후야야 분쟁을 줄이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됐다. 블루안에서는 당시 마을 리더와 가가와드(시의원) 딸이 책을 모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키다파완'이라는 지역 관계자가 방문해서는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때까지 그럴 생각조차도 못했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 낼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마을 주민 중에는 없었다.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해도 거절 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다물록 군이 '엄브렐라(Umbrell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분쟁지역에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에 우리 마을이 선정되었다. 군수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1박 2일 동안 살피본 뒤, JTS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필리핀JTS의 현지 스텝이었던 도동이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본부의 최종 승인을 얻어 학교를 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학교 건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사업이 결정된 배경에는 작은 학교를 우리 손으로 먼저 시작했다는 점도 있었다.

Q. 방문에 앞서 자료를 찾아보니 학교 준공식때 소감을 얘기하며 눈물을 보이셨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이었나요?

준공식 행사 때 뭔가 울컥했다. 학교 건축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었다. 주민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항상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했다. 그렇게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학교를 지어냈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JTS와 다물록 군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JTS의 스텝과 군청의 코디네이터인 제시가 방문하여 어려운 점을 들어주었고, 목수를 지원해주고 쌀을 제공해 주면서 주민들을 함께 독려해 주었다.

Q.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을텐데, 리더로서 마을 사람들을 독려한 비법을 듣고 싶습니다.

불평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만 모아서 추진하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어도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어서 분위기가 좋았다.

Q. 마지막으로 JTS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JTS에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JTS의 지원 덕분에 마을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왔다. 지금의 블루안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다. 학교 건축이 끝난 뒤에도 우리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

을 가져준 것에도 감사한다. JTS는 정말 훌륭한 파트너이다.

블루안 학교의 열정적인 선생님들

이렇게 학교가 성장하기까지는 학교 선생님들의 노고가 많았다. 선생님들은 'Clean & Green(깨끗하고 푸른 학교)'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학교를 꾸미고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실로 제2회 JTS 우수학교(Best School)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상으로 JTS로부터 페인트와 지붕 빗물받이 공사 자재를 받아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블루안 학교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평화로운 블루안 학교 전경



Q. 우선 블루안이 어떤 마을인지 소개해주세요.

블루안은 포근하고 사랑스러운 마을이다.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마을 사람들이 협조적인 것을 굉장히 부러워 한다. 항상 주민들이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도 보고 교사와 주민이 교류를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을주민과 친해진 것 같다.

Q. 외진 곳에서 4년 넘게 교사생활을 하시면 불편한 점이 많은 반면에 좋은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아이들



생활이 단조롭고 밤에는 평온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술도 못먹고 여기 청년들과 운동을 하거나 학교를 만드는데 시간을 쓰다 보니 건강관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많다. 제일 큰 건 뭐니뭐니 해도 가족들이 보고 싶은 것이다. 핸드폰으로 문자나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나마도 배터리를 아끼지 않으면 금방 닳아버리기 때문에 못할 때가 많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물 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다. 우기에는 JTS가 지원해준 빗물받이와 물탱크로 손쉽게 샤워를 하지만, 10월 부터 3월까지 건기라서 20분 이상 수원지까지 걸어가서 샤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까지 1시간 40분이 걸리는데, 마을 사람들이 태워다 줄때도 있지만 농번기에는 주민들이 바빠서 그것

주말 퇴근길, 쪽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



도 힘들다. 말이라도 한 마리 있으면 좋겠지만. 하하.

Q. JTS가 지원한 것 중에 가장 유용했던 게 어떤 건가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학교이다. 학교가 마을에 상상도 못했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 예전에 JTS에서 지원해준 과실수 중에 마랑과 람부탄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딱 3년이 되어서야 결실을 맺었다. JTS의 지원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없는게, JTS는 지원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몇 번이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주기 때문에 덜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물품은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실을 맺은 람부탄



Q. 학교가 이렇게 번창하기까지 선생님들의 공로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았다. 마을 리더가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협조적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학교를 꾸미는 사업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한둘이 모인 상황에서 그 사람들끼리만 열심히 하다 보니 몇 명이 더 모여들었다가, 사업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그러다가 학부모위원회를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더니,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이 되고, 사람들도 번갈아가면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교사텃밭, 학생텃밭, 학부모텃밭을 학교 주위에 만들게 됐다. 지금은 우리 학교가 다른 어떤 학교보다도 조경이 잘 됐다고 자부하고 있다.

블루안 학교의 준공식 기념 동판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과실수를 더 심어야 하고 양 어장도 지어야 해서 할 것이 많다. 군청과 JTS 모두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선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수학습법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번 JTS 교사워크숍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배웠던 걸 연구하고 있다.

마을 아이들과 오성근 활동가



마오빠이 응아 아가!
(좋은 아침입니다!)

- 마라뿔 조기복구 사업 준공식을 마치며

태풍 하이옌이 할퀴고 지나간 필리핀 사마르섬 마라뿔에서 태풍에 무너지거나 파손된 학교를 복구하는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 태풍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대끼며 8개월간 복구 사업을 진행해 온 오성근 활동가가 그 동안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립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필리핀 JTS - 오성근 활동가

2013년 11월 7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던 하이옌(필리핀 이름 "올란타")가 필리핀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었다.

특히, 태풍의 직격을 받은 동부 비사야 지역, 레이테-사마르 해안 지역은 어느 곳보다 피해가 컸다. 필리핀 JTS에서는 태풍 피해 발생 3일 만에 민다나오 센터의 송지홍 활동가를 재난 현장에 급파하여 피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컸던 타나우완(Tanauwan)지역 3개 마을의 2,000여 가구에 대해 생필품을 지원하였다. 또한 태풍 이후 피해 복구를 고려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피해가 가장 컸던 해안 지역 6개 시·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나머지 5개 시·군은 외부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유독 마라부트(Marabut)시만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JTS는 마라부트를 조기 복구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 정부와 접촉하였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JTS가 마라부트시 전체의 학교 복구를 담당해 주기를 원하였고, 이후 협의를 통해 학교 수리 복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라부트는 재난 이전부터 매우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필리핀에서는 시·군을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마라부트는 최하 수준인 6등급 보

다 고작 한 등급 높은 5등급 지역이었다. 사업이 결정되고 이곳으로 파견되어 도착한 1월 3일,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이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인 타클로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구 20만 명 중 1만 명이 이상이 태풍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을 정도로 피해가 컸고, 그로 인해서 도시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자재상 등 점포가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태풍 피해를 입은 물품들을 파는 정도였다. 복구 사업을 진행하려면 모든 것을 외부에서 구입해 들여와야 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양질의 자재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필리핀 JTS의 이원주 대표가 마닐라에서 직접 자재 공급 및 배송까지 도맡아 진행하여 간신히 자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전기·통신망이 사실상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전기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사에 필요한 대용량 변압기 설치를 약속 받았고, 잦은 정전에 대비하여 마닐라에서 대용량 발전기를 가져와 전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다.

재난 발생 이후 2달이 채 되기 전인 1월 초에 학교 수리를 시작하였다. 다른 단체들이 긴급 구호 이후에 복구 단계에 대해서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복구 계획이 있어도 자재와 인프라 문제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을 때, JTS는 어린이들이 태풍으로 인한 트라

우마를 극복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공부하며,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마닐라에서 자재를 가져오고 대용량 발전기를 공수하는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빠르게 학교 지붕 수리부터 진행하였다.

먼저,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 별로 구분하여,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 사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개 학교, 교실 45칸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곳에서는 3월 부터 흑서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빠르게 지붕을 덮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복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은 분교급 학교 8곳에는 텐트 교실 16동도 지원하였다.



4월 부터 5월 까지의 방학으로 학교가 비어있는 동안에는 실내 공정에 집중했다. 개학 이후 어린이들이 새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1차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분교급 학교 8곳의 교실 10칸을 복구하는 2차 사업도 시작하였다.

5월 말부터는 초등학교에 비해 외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를 3차 사업으로 시작했고,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교실 신축을 4차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신축은 기존의 수리 복구 사업과는 사뭇 달랐다. 파손 정도가 각각 달라서 필요한 자재량을 가늠하기 쉽지 않았던 복구 때와는 다르게,

같은 규격의 교실을 새로 짓는 것은 더 쉬울 것이라 예상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무엇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공사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덧 준공식 날인 8월 20일이 되었다. 거짓말 같았던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마침내 공사의 끝을 알리는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

준공식에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국JTS 대표단과 필리핀JTS의 이원주 대표님 일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필리핀 사무소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인도적 지원과장, 이 곳 동부 비사야 지방의 교육청장이 참석했다. 또 뚝방에도 인근 지역에서 재건 복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군 아라우 부대(한국군 필리핀 합동 복구 지원단)의 부대장도 참석하여 준공식을 더욱 빛내주었다.

준공식은 아침 8시, 마라부트 중앙 초등학교(Marabut Central ES)에서 처음 열렸다. 이 학교는 JTS가 복구 사업을 진행하였던 마라부트시의 중심이 되는 학교이며, JTS에서 집중하여 지원하였던 학교 중 하나였다. 가장 먼저 복구를 시작한 학교이고, 이후에 15칸 교실을 복구하고 전파된 교실을 고려하여 7개 교실을 신축하여 총 22칸의 교실을 재건한 곳이다.

마라부트 중앙 초등학교 준공식의 스텝으로서 학교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교장 선생님이 갑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는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지난 8개월 동안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보았던 그의 첫 모습이 떠오른다. 비가 오는 어느 날, 머리에 수건을 덮고 장화를 신고 태풍이 쓸어 온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을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번 준공식에서도 한 사람의 인부가 되어서 직접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를 생각하니, 그 동안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나도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두 번째 준공식은 오스메나 초등학교(Osmena ES)에서 열렸다. 이 학교는 마라부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써, 인근 4개 마을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 역시 가장 먼저 복구를 시작해서 총 14칸의 교실을 복구한 곳이다. 오스메나 초등학교 준공식을 마친 이후에는 오스메나 고등학교(Osmena National HS), 깔루와얀 초등학교

(Caluwayan ES), 레가스피 초등학교 (Legaspi ES), 딱알락 초등학교(Tag-alag ES)를 방문하며 약식으로 준공식을 진행하여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마칠 수 있었다.

이곳에 온 지 어느덧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참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방향하기도 한 시간이었지만, 지나 보니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직 이곳 사람들에 대한 애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나의 기준, 한국식 사고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해서 생겼던 것 같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수고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나와 늘 신경전을 벌였던 타클로반의 자재상, 이제 조금은 사사롭게 까지 느껴지는 공무원들, 언제나 김치를 달라고 하는 전기 회사 직원과 은행의 여직원들도, 지금은 민다나오로 돌아간 차량 기사와 조금은 답답한 지금의 기사 까지, 누구 하나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다. 참 많은 이들의 노고가 들어갔다. 한 십 년이 지난 후, 이곳에 꼭 다시 와보고 싶다.

레가스피 초등학교 준공식



손상된 도로를 부서진 표지판을 이용해 건너는 활동가

홍수가 나도 버뽀냥(괜찮아) - 라오스의 너무도 흔한 물난리 대처법

비가 유독 많이 내리던 수쿠마의 7월 30일, 우려했던 강의 범람으로 인해 수쿠마 일대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홍수 피해 대처법과 다른 라오스 사람들의 홍수 대처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박용대 활동가

7월 30일,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더욱 거세져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학교를 짓고 있는 수쿠마는 메콩강과 캄무안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인 이맘때가 되면 매년 거리와 집들이 물에 잠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음날 일찍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양쪽 강물이 범람해 집이 물에 잠기고 길을 다닐 수 없어 배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의 범람으로 마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한 라오스JTS 활동가들은 본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넘쳐오는 빗물



“우리가 긴급구호를 생각해야하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주민과 관공서를 통해 마을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본부와 소통해서 긴급구호를 준비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

접 상황을 보러 갑시다.”

결국 마을을 방문하기로 한 활동가들이 고생 끝에 도착하여 살펴 본 마을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튜브를 타고 놀고 있고, 아이들의 아버지는 흙 묻은 오토바이를 닦고 있네요. 본인들 집이 물에 잠겨있는 상황인데 아랑곳 않는 모습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배를 타고 돌아다녀 보았는데, 물에 반 정도 잠긴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지 않습니다.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우선 관공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콕농부아 학교 건축의 건축 총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부올론’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올론씨의 말에 따르면 피해조사 결과 생각 보다 피

잔뜩 짐을 실은 배



해가 크지 않고, 특히 인명피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쿠마 지역의 학교들 중 홍수로 인해서 기자재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에도 “괜찮습니다(버쁜냥). 아직 학기가 시작되지 않았고 피해도 적어서, 저희 선에서 이미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줘서

도로의 웅덩이를 건너는 모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피해보다 본격적인 우기인 8월과 9월에 올 폭우가 걱정됩니다. 나중의 피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JTS에 요청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간 수쿠마는 물이 이미 다 빠져 바닥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에 잠겨있던 흙 길은 여기저기가 움푹 파여 차가 다니기 힘들다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이곳 사람들은 “버쁜냥”이라고 합니다. 위험하다며 호들갑을 떨던 우리의 모습이 무안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가치 없는 호들갑 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곳에서 8~9월이 되면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재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안을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미리 연습해보고 지역 관공서와의 관계를 다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라오스 정부에서 도로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니, 도로가 개선되는 내년부터는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도, 주민에게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활동가들은 이렇게 또 조금 성장합니다.

콕농부아 마을 이장님 가족과 문태훈 활동가



팍세 일기

- 1년 반, 긴 여행을 정리하며

그간의 활동이 어느 듯 마무리되어 갑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이불 빨래를 해서 잘 말려두었고, 동료 활동가들한테 이 때는 이렇게 했다, 저 때는 이렇게 했다 알려주며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돌아갈 때가 다가오니 태국이나 라오스 뉴스보다 한국 뉴스를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함께하고 글쓴이 라오스 JTS - 문태훈 활동가

활동기간동안 가장 집중했던 일은 학교건축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건축 기술자들이 벽돌 한장씩 쌓아올리는 일부터 마감까지 직접 했고, 저는 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이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사업장은 라타나끼리주(州) 언동미어군(郡)에 2개마을, 따뱅크에 3개 마을이 있었고, 저는 언동미어 2개마을의 학교건축을 맡았습니다. 라오스 사업장은 참파삭주 수쿠마군 1개 마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업을 마무리할 즈음 라오스로 이동했습니다.

2014년 1월 언동미어 인마을 학교건축 현장



JTS 활동가들은 건축자재 공급이 기본업무였지만 주민참여를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건축공사에 자원봉사 노동참여를 하는데, 공사 중간쯤 가면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 의견을 모으고, 독려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보면 학교건물 만큼 소중한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

물론 초보 활동가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전적으로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부에는 10년 동안 JTS에서 일한 김재령 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선배 활동가가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일단 시도해보고 잘 되지 않으면 반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고쳐가는 모습이 감명 깊었습니다. "이 정도는 어려워야 재미있지!"라던 말이 기억납니다.

공사 관련 회의를 하고 있는 이장과 주민들



캄보디아에서의 1년

캄보디아에서는 소수민족 마을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길도 인근에 고무농장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만들어 놓은 비포장 도로가 고작이었습니다.

학교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주민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술자는 불만이었습니다. 이장님과 이야기 해보니 주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러 갔다고 했습니다. 플랜테이션 회사에서 굴삭기로 땅을 개간하는데, 여기서 당신들 농경지라도 경계가 없으니 개간해서 말뚝 박기 전에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라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월쯤에 주민들이 토지를 측량해주는 대학생 봉사단과 회의가 있다길래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총리실에서 대학생 봉사단을 꾸려 소수민족의 토지측량과 소유관계 증명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농경지를 마구잡이로 개간하지 못하게 규제하거나, 원주민들의 터전에는 사업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아쉬웠습니다.

언동미어 냥마을 일대에서 경지를 개간하는 모습



9월, 우기가 한창일 때 언동미어와 따땡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두 번의 홍수 중 한번은 폭우로 툰레세산 강이 범람한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상류 댐에서 방류한 물이 문제였습니다. 하류에는 이틀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상류에 비가 많이 오니 수문을 연 것입니다.

비가 안 와도 홍수가 났습니다.

툰레세산 강은 상류가 베트남에 있고 하류는 캄보디아 라타나끼리를 지나 메콩강 본류와 합류하는 강입니다. 베트남 유역에는 다목적 댐이 십수개 있다는데, 댐에서 유량을 조절할 때마다 하류 수위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러면 물고기들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댐에서 발전한 전기를 쓸 수 없지만, 댐이 물을 내려 홍수가 지면 그때마다 피해를 입고 산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황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글자도 모르고 인구도 적다고 무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동미어 따땡마을 주변이 홍수로 물에 잠겼다.



그렇기에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속내를 보입니다. 전에 주민회의에서 김재령 활동가가 마을 원로와 이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어디서 왔어요?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어른신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요?”

주민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베트남쪽 산지에 살다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병들고, 맹수들이

많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은 똑똑합니다. 다른 부족 사람들 보다 여러 말을 할 줄 알아요. 크마에(캄보디아어)도 할 줄 알고, 크쩍(소수민족 모어) 말도 할 줄 알고, 다른 부족 말도 할 줄 압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면 사람들이 똑똑해서 좋다고 그래요.”

“이번에 학교를 지으면 우리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고, 아이들이 똑똑해지면 정부기관에 가서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부족이 더 강해질거예요. 우리들은 약기를 물려받았지만 아이들한테는 이 학교를 물려줄겁니다.”

마을 어른신 이야기를 듣는시간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고된 노동에도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어른들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정부기관에 진출해서 무시받지 않고 더 강해지려는데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도

합니다. 강해지지 않아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궁금해집니다.

싸바이디 라오스

라오스에서는 사업장이 이제 막 꾸러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지의 건축 방식이나 문화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설계도와 자재재산표를 꼼꼼하게 검토했고, 실제 공정도 자세히 기록해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장님 집에서 술하게 잠을 잤는데, 캄보디아에서는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것과 멀리서 사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할까?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 할때는 농사를 언제 시작하냐고 물으면 6월쯤 시작한다고 대답했는데, 라오스에서는 이제 비 좀 오고 땅이 물러지면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다보면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라오스에 파견된 첫날은 길을 건다가 감탄했습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길 건너는 사람을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들이 자기보다 느린 대상을 만나면 경적을 울리고 제 속도로 가려고 했고, 한국도 경적은 덜 울리지만 추월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주청사에서 함께한 삐마이 잔치, 실로 뜬 팔찌를 걸어주며 복을 기원한다



6개월을 지내면서 또다시 사람마다 차이가 많다는 것을 깨닫지만 여전히 첫인상은 가슴에 아로새겨집니다. 이를테면 술자리가 있으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부른다든지, 낮은 담장에 방법용으로 쳐 놓은 창 끝이 몽툰하다든지, 버스가 고장 나면 한두 시간은 기다려 주는 사람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다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에는 우열이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여유로움은 참 부럽습니다.

느린 사람을 만나면 비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속도에 맞추는 일,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못했던 일입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쫓기고, 다른 사람한테도 재촉했습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힘 세면 무시 안 당해서 좋겠다고 살았으니, 그동안 마음 씩씩이 한번 팍팍했습니다.

활동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오히려 새로운 사업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디딤 삼아 설치했다가 한 번 쓰고 버리는 나무 대신 비계 대여 사업을 해 보고 싶고, 외국에 일하러 간 자식이 있으면 전화연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봤습니다. 자꾸 생각나는 것을 보니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오는 것보다, 학교 없는 마을이 남아 있지 않아 제가 더이상 이곳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현장 활동가를 믿어주고 기다려준 후원자 분들과 본부 활동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국내 JTS NEWS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 왔을까요?
나라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orea 국내소식



인도로 보내기 위해 포장해 놓은 노트북 컴퓨터들

1. 중고 노트북 수집 캠페인 결과

지난 4월 부터 6월 까지 인도 수자타아카데미의 현지인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중고 노트북 컴퓨터 기증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총 27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JTS에 기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태가 좋은 컴퓨터들은 바로 수자타아카데미로 보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약간의 정비를 거쳐 보낼 예정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기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19 세계인도주의의날 세상 속 고통을 지우고 희망을 심는 날

2.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

8월 19일은 UN이 제정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재난과 분쟁의 현장에서 순직했거나, 지금도 그 현장에서 인도적 구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많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올해 세계 인도주의의 날은 국내 최초로 민간협력을 통해 21개 기관 및 단체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2주간 이어진 온/오프라인 행사에 JTS도 참여하여 국내 유수의 단체들과 함께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활동을 알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JTS 모금활동가들의 거리모금 캠페인

3. JTS의 연중 거리모금 캠페인 성과

JTS는 전국 각지에서 연중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전국에서 총 29건의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연인원 3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기아·질병·문맹으로 고통 받는 제3세계의 이웃들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전국에서 거리모금으로 약 2,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모금에 동참해주신 후원자 여러분과 곳곳에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 인도 활동보고회

지난 8월 30일, 인도 JTS의 사업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신아 활동가의 활동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단순한 사업 보고 뿐만이 아니라, 8년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근무하며 학교의 성장을 지켜본 활동가의 입장에서, 학교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5. 필리핀 JTS 송지홍 활동가의 귀환

민다나오의 필리핀JTS 사업장에서 3년 4개월 동안 활동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를 수행했던 송지홍 활동가가, 해외 활동을 마치고 한국 JTS의 본부 활동가로 복귀했습니다. 다년간의 해외 사업 경험을 가진 송지홍 활동가의 합류는 JTS 본부의 해외 사업 운영 역량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ndia 인도



독립기념일 행사를 진행중인 유치원

1. 인도의 독립기념일

8월 15일은 인도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매년 본교에서 진행했던 독립기념일 행사를 이번에는 마을별로 흩어져 있는 유치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어디서 얻었는지 고사리 같은 손에 조그만 국기를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애써준 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행사 분위기가 사뭇 경건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모습을 통해 인도에 대한 자부심이 느낄 수 있기도 했습니다. 미타이(단과자)를 나눠먹으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단과자 만큼 달콤하고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Philippine 필리핀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학생들

1. 만타부 뉴트리션 행사 참여

이곳 필리핀에서 7월은 영양의 달입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지는 취지로 각종 행사가 있었는데, 만타부 학교에서는 7월 15일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토란이나 고구마 같은 야채를 많이 가져오고, 비랑가이(음사무소)에서는 아이들 영양죽과 비타민을 지원하였습니다. 필리핀 JTS에서도 쌀과 야채를 준비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날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태양광 전구를 밝힌 만타부 주민들

2. 만타부 마을의 밤이 환해졌습니다!

지난 7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마닐라 정토회 소속 김상민님과 김지오군, 김준오군이 만타부 마을에 방문하여, JTS 활동가를 포함한 마을 주민 40여명을 대상으로 태양광 전구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는 사전에 선정된 44가구를 방문하여 태양광 전구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전구 설치비용을 후원하고 직접 설치 봉사까지 하신 김상민님은 "아직 전기 연결이 안된 만타부 마을이 반영구적인 태양광 전구 덕분에 조금이나마 밝아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사패를 받고 있는 이원주 대표

3. 필리핀 교육부 장관의 감사패

마라뭇 지역의 학교 복구 준공식이 끝난 지난 9월 4일, 필리핀 교육부 차관의 초대를 받아 이원주 필리핀 JTS 대표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태풍으로 파손된 마라뭇의 학교 복구 사업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이원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JTS를 대표하여 필리핀의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마라뭇의 교실 80여 칸을 복구하여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받았습니

Laos 라오스



문태훈 활동가

1. 문태훈 활동가가 돌아갑니다!

2013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문태훈 활동가가 오는 9월에 활동을 마칩니다. 문태훈 활동가는 캄보디아에서 1년간 학교건축 공정을 진행하고 2014년 2월에 라오스로 파견되어, 지난 6개월 동안 콕농부아 학교 건축의 공정 관리를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그동안 성심을 다해 활동한 문태훈 활동가에게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물에 잠긴 주택

2. 수쿠마군 홍수피해 대책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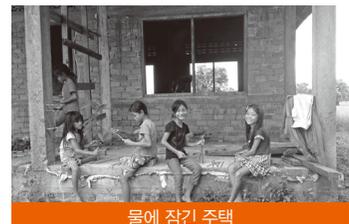
7월30일 폭우로 인한 갑작스러운 강의 범람으로 학교건축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었던 수쿠마 지역의 도로와 집들이 침수되었습니다. 라오스JTS활동가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가옥 및 인명 피해는 거의 없고, 일주일 만에 물이 모두 가라앉고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 지역이 복구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본격적인 호우기인 8~9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대비하여 지역 재난 관리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지부 내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붕 작업이 진행 중인 학교

3. 콕농부아 마을 학교건축 지원사업 진행

학교건축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콕농부아 마을의 학교가 어느 덧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건축에서는 지붕마감, 벽체미장, 도색 등을 남겨두고 있으며, 부속시설로 교육기자재와 화장실 및 세면대, 놀이터, 울타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홍수로 인해 도로가 심각하게 유실되어 자재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을 주민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열어 자재공급방안을 논의하고 경운기를 이용해 자재를 운반하는 등 학교건축의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주택

4. 학교를 짓는 이유

7월30일 폭우로 인한 갑작스러운 강의 범람으로 학교건축지원 사업을 진행 중 한국의 신학기가 3월에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라오스의 신학기는 8~9월에 시작합니다. 신학기 전에 학교를 짓기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지붕을 얹고 모양새가 잡히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자신이 다닐 학교를 짓는 과정을 구경합니다. 부모님들이 곧 다른데 가서 놀라고 아이들을 보내지만, 아이들의 기대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들도 덩달아 기분 좋아 하십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신규 파견 활동가)

인도	김신아, 최동호, 박중화, 권도영, 정윤미, 민도연, 박연화, 김명숙*, 신예슬*
필리핀	민다나오 : 김희자, 이재곤, 박영일 / 마라부트 : 임희성, 원석환, 오성근
라오스	배혜정, 박용대

후원인의 소리



외손자 권연우 첫 돌 기념
- 바른 세상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길
- 김연금 -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한지민님과 함께합니다.
(지민동 카페 빙9뱅크)
- 서병규 -

우리 딸 '김수빈' 이름으로 다른 나라의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김성용 -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 성채현 -

또복이의 탄생을 축하하여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어린이를 돕고 싶습니다.
- 황은숙 -

그동안 살아온 삶을 참회합니다. 관세음보살
- 안중우 -

최윤석씨 생일 축하합니다.
- 이수빈 -

휴가나온군인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성금합니다.
- 이준호 -

절에 올리던 백중기도비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권외정 -

음력 7월 5일 부모님 기일을 맞이하여 영가의 천도발원하오니 온갖 굴레와 고통을 벗어나 해탈하여지이다.
- 김연수 -

또복이의 탄생을 축하하여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북한 어린이를 돕고 싶습니다.
- 황은숙 -

조병삼 생일 축하
- 박미경 -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 박완임 -

꿈은 세계어린이들 도와주세요~
- 이주형 -

김정숙 증조모 기일
- 임태옥 -

어머니 영가 극락왕생 발원합니다.
- 최정숙 -

결혼을 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 김지영 -

청리아 7기 4조 MT_사랑합니다
- 장용경 -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 장순석 -

특별후원금 (2014. 06. 01. ~ 2014. 07. 31.)



2014년 6월 복 한 결 연

고혜원	100,000
김경미	30,000
김민철	10,000
김승희	10,000
김윤경	10,000
김정현	5,000
목안방(김홍임)	40,000
문경숙	20,000
박동민	30,000
박미혜	50,000
박별님	20,000
박완임	10,000
박희달	210,000
성채현	30,000
송호철	500,000
신재영	30,000
안중우	10,000
에이치투엠	20,000
웹랜드	100,000
이규경	20,000
이수민	200,000
이정림	50,000
이진일	10,000
이태경	50,000
장연현	70,000
최미영	50,000
최장숙	5,000
하은자	30,000
허대영	10,000
홍승우	10,000
형은숙	100,000

이규경	20,000
이주형	20,000
임성희	30,000
장연현	20,000
정진희	50,000
정현옥	50,000
김승희	50,000
최미영	50,000
최윤정	94,780
허수호	10,000

필 리 핀

고혜원	50,000
곽도순	30,000
김영범	5,000
김별님	10,000
박희달	40,000
백건구	30,000
신재영	10,000
안중우	10,000
에이치투엠	30,000
이진일	5,000
홍승우	10,000

JTS 전체사업

(재)꿈나무가	200,000
강인숙	10,000
계몽불교경연	46,000
고혜원	50,000
곽진숙	30,000
광주이영남영가	500,000

인도 및 제3세계

고혜원	100,000
권기현	10,000
김광현	200,000
김민철	10,000
김석용	10,000
김성용	50,000
김진석	290,000
박미혜	50,000
박별님	20,000
박희달	50,000
변옥화	10,000
성채현	20,000
수미정	10,000
신유빈	20,000
신재영	10,000
안중우	10,000
에이치투엠	20,000
염종만	100,000
웹랜드	100,000
이광준	30,000

김지영	1,000,000
김태균	500,000
김혜련	5,000
김호수	3,000,000
김희창	5,000,000
대구대전승경미	50,000
대한불교조계종	10,000
동서초4학년3반	10,550
두바이정토회	1,100,000

문정환	300,000
박경숙	200,000
박나영	200,000
박미경	100,000
박보영	200,000
박영일	404,800
박완임	10,000
박은주	100,680
박중현	626,000
박창	10,000
배동규	20,000
백영화	10,000
보내드립니다	10,000
서미옥	10,000
서초불교대	100,000
서호재	100,000
성낙원	50,000
성동현 성정현	20,000
성명준(한지민씨편)	20,000,000

손동석	100,000
손영수	50,000
신승희	50,000
신인자	50,000
신재은	20,000
양경민	10,000
양옥희	10,000
에이치투엠	20,000
연준호	50,000
오명옥	40,000
우현정	100,000
유경순	50,000
유애경	120,000
유정자	34,120
유홍사	30,000
윤미숙	100,000
이경옥	30,000
이나금	200,000
이미영	30,000
이미향	10,000
이비룡김지랑팔	10,000
이승혁	32,000
이승호	27,000

이신혜	120,000
이원형	20,000
이재향	28,380
이점연	400,000
이주영	100,000
이창희	100,000
이현주	30,000
이희숙	100,000
일상에서깨어있기	921,000
임명희	30,000
임양호	300,000
임영광	70,000
임윤정	10,000
임창숙	20,000
임태옥	50,000
임학진	10,000
장세영	20,000
장순석	10,000
장신덕	10,000
장신덕	10,000
전순연	1,000,000
전혜빈	126,130
정경주	200,000
정미란	500,000
정민희	300,000
조대영	55,310
조아공부방	51,670
조인숙	100,000
조재희	100,000
주)코렘에듀 윤준호	100,000

차윤실	40,000
창원백부동	30,000
최미라	10,000
최미숙	100,000
최미희	32,000
최희애	200,000
최해기	5,000,000
한국불교태고종극락사	40,000,000
한지민씨편	40,000,000
함미정	30,000
해운대조계정	573,000
허영선	100,000
홍경주	50,000
황순단	50,000
황정숙	20,000
후원금	100,000

김경미	30,000
김금숙	50,000
김승희	2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30,000
김정미	200,000
나경원	50,000
마산청년정토회	50,000
수행및보기	50,000
문경숙	20,000
박동민	31,000
박별님	20,000
박선철	20,000
박선희	10,000
박완임	10,000
박재근	100,000
박진희	5,000,000
박희달	1,000,000
서양숙	30,000
서정옥	1,000,000
소진호	30,000
신유빈	10,000
신재영	50,000
심효은	20,000
웹랜드	50,000
유창선	10,000
이서영	50,000
이성걸	100,000
이승덕	270,000
이준석	100,000
이준호	30,000
이진일	14,500
장용경	14,320
장원주	100,000
전선희	15,000
김민희	150,000
박별님	10,000
박선철	50,000
박재근	100,000
박정하	50,000
박희달	20,000
서양숙	20,000
신통현	80,000
신재영	20,000
심효은	20,000
유창선	10,000
장원주	100,000
정민호	20,000

2014년 7월 복 한 결 연

고광남	100,000
권효임	50,000

김경미	30,000
김금숙	50,000
김승희	2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30,000
김정미	200,000
나경원	50,000
마산청년정토회	50,000
수행및보기	50,000
문경숙	20,000
박동민	31,000
박별님	20,000
박선철	20,000
박선희	10,000
박완임	10,000
박재근	100,000
박진희	5,000,000
박희달	1,000,000
서양숙	30,000
서정옥	1,000,000
소진호	30,000
신유빈	10,000
신재영	50,000
심효은	20,000
웹랜드	50,000
유창선	10,000
이서영	50,000
이성걸	100,000
이승덕	270,000
이준석	100,000
이준호	30,000
이진일	14,500
장용경	14,320
장원주	100,000
전선희	15,000
김민희	150,000
박별님	10,000
박선철	50,000
박재근	100,000
박정하	50,000
박희달	20,000
서양숙	20,000
신통현	80,000
신재영	20,000
심효은	20,000
유창선	10,000
장원주	100,000
정민호	20,000

김경미	30,000
김금숙	50,000
김승희	2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30,000
김정미	200,000
나경원	50,000
마산청년정토회	50,000
수행및보기	50,000
문경숙	20,000
박동민	31,000
박별님	20,000
박선철	20,000
박선희	10,000
박완임	10,000
박재근	100,000
박진희	5,000,000
박희달	1,000,000
서양숙	30,000
서정옥	1,000,000
소진호	30,000
신유빈	10,000
신재영	50,000
심효은	20,000
웹랜드	50,000
유창선	10,000
이서영	50,000
이성걸	100,000
이승덕	270,000
이준석	100,000
이준호	30,000
이진일	14,500
장용경	14,320
장원주	100,000
전선희	15,000
김민희	150,000
박별님	10,000
박선철	50,000
박재근	100,000
박정하	50,000
박희달	20,000
서양숙	20,000
신통현	80,000
신재영	20,000
심효은	20,000
유창선	10,000
장원주	100,000
정민호	20,000

강영애	50,000
김벌석	20,000
김상윤	20,000
김승희	20,000
김영호	30,000
김유진	30,000
김혜숙	200,000
나경원	50,000
나희원	100,000
박경환	30,000
박기홍	100,000
박별님	20,000

인도 및 제3세계

강영애	50,000
김벌석	20,000
김상윤	20,000
김승희	20,000
김영호	30,000
김유진	30,000
김혜숙	200,000
나경원	50,000
나희원	100,000
박경환	30,000
박기홍	100,000
박별님	20,000

박선철	50,000
박재근	100,000
서병규	50,000
서양숙	20,000
소진희	30,000
수미정	10,000
신재영	20,000
심효은	20,000
웹랜드	50,000
유창선	10,000
이광준	40,000
이규경	10,000
이주은	10,000
이진일	5,000
이철용	500,000
장선호	30,000
장현주	100,000
정민호	30,000
정연현	10,000
정지우	5,000
정현옥	30,000
한국불교태고종극락사	32,152,396
허수호	10,000

광주 임영광	100,000
권효임	50,000
금삼승인승필	31,000
김금래	200,000
김금주	5,000
김대홍	30,000
김동재	500,000
김말점	50,000
김미경	10,000
김미영	100,000
김민경	20,000
김인호	10,000
김성희	30,000
김순실/유은실	31,000
김승희	20,000
김애경	10,000
김언국	200,000
김연금	1,000,000
김연수	50,000
김영사	689,400
김영희	30,000
김운하	50,000
김유진	20,000
김윤경	10,000
김은숙	66,780
김미영	100,000
김정숙	50,000
김지성	1,500,000
김지원	20,000
김찬법당	1,160
김진숙	5,000
김희수	2,000,000
김희경	39,500
김희자/필리핀	183,700
나경주	100,000
나승연	100,000
나희원	150,000
노희경	10,000,000
동식초43	31,850
류수진	50,000
류수진	50,000
박경숙	50,000
박경일	40,000
박미경	100,000
박민정	100,000
박복동	96,000
박설순	200,000
박순옥	1,000,000
박완임	10,000
박재근	50,000
박정민	758,620
박정숙	200,000
박정자	5,000

강영애	50,000
김벌석	20,000
김상윤	20,000
김승희	20,000
김영호	30,000
김유진	30,000
김혜숙	200,000
나경원	50,000
나희원	100,000
박경환	30,000
박기홍	100,000
박별님	20,000

JTS 전체사업

감사합니다	200,000
강민경	40,000
강인숙	10,000
강인자	100,000
고광남	100,000
공연표	200,000

박종천	120,000
박준	50,000
박중현	780,000
박태화	500,000
박필화	200,000
박해령	50,000
박희달</	

나눔저금통 현황 (2014. 06. 01. ~ 2014. 07. 31.)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4년 06월 01일부터 2014년 07월 31일까지
강화서포터즈 1,019,800
강희석 381,570
거제 268,500
광명 61,340
교사멘토링 198,000
구미 1,036,770
국민은행강남대로지점 161,230
김해 352,270
내서 157,000
노원 412,040
달서 264,710
대구 2,143,930
동래 204,850
마산 533,030
마산희망강연 190,000
부천 267,550
분당 240,350
서울정토회 300,000
서초 1,015,510
성동 157,400
손인권 30,000
수원 237,290
순천 110,000
양산 50,000
양천 409,250
여수 232,200
영주 185,550
용인 398,950
울산 241,760
일산 179,370
일산서포터즈 171,020
입재시대중북지부 264,000
전주 299,610
창원 873,070
태전 115,060
포항 1,574,670
해운대 319,430

거제
김미옥 61,450 김은숙 40,950 법당돼지 23,150 원마트 98,880 이오숙 22,680

경산
백옥교 17,600 순문숙 20,590 인춘옥 20,810 허태숙 53,190 황해진 29,510

계룡
윤덕상 25,740

관악
관악법당 32,040

광명
무명 21,560 정인숙 24,200

구미
고은정 19,700 김미수 8,570 김정화 30,750 무명 22,430 양지현 41,370 장경미 22,110 최성선 20,310 최화실 28,530

김천
김천법당 1,160

김해
권영순 21,870 권영순 35,020 김경옥 77,770 김기현 35,120

남양주 광동중학교
광동중학교219개 1,490,560 (1학년2만 25,110 2학년8만 27,750 3학년2만9,960 3학년모금 25,750 강동원 4,780 강동현 17,850 강수민 280 강예원 3,550 강인환690 강호원 12,510 고광진, 김다원, 문태성, 최형진, 양세화, 홍수빈 6,100 고민정 4,720 공소민 14,040 공수현 9,000 곽영서 2,280 곽정은 13,920 곽정은 11,080 곽현성 1,000 구대욱16,540 권나라 8,080 권민정 20,930 권범준 3,170 권예진 1,370 권준희 8,060 권준희선생님 25,000 권태웅 11,910 권혁진 210 김나영 6,820 김다빈 3,080 김대연 24,230 김대한5,100 김래빈 12,840 김미주 1,830 김민규 7,730 김민아 2,890 김민택 3,100 김병록 3,900 김상호 3,670 김선경 7,500 김성훈 4,880 김세미 2,210 김세희 2,780 김소민 4,870 김수빈 2,120 김수연 1,230 김수정 10,260 김연주 470 김유나 2,540 김유빈 1,260 김유진3,320 김윤식 500 김은선 1,870 김재희 11,940 김정미 1,020 김정현 7,670 김준호 4,120 김지수 1,400 김지우 9,240 김지원 2,300 김

지원 11,540 김진 2,620 김진영 8,540 김진영1,510 김찬비 9,980 김채연 6,690 김태민 53,590 김태웅 1,740 김현주 3,040 김혜련 2,810 김혜인 2,310 김혜진 1,060 남민우 7,280 남지연 1,720 남형창 4,030 무명 2,790 무명 2,500 무명 1,800 무명 3,290 무명 460 무명 200 문누리 3,570 문동원 5,800 문이주 10,640 문정빈 2,310 문혜빈 6,630 민세리 3,730 박건웅 17,060 박건웅 3,630 박남식15,520 박상준 1,080 박세인 2,840 박시운 5,730 박연화 2,550 박주희 2,550 박진솔 980 박찬규 4,950 박채림 4,830 박혜빈 700 방민영 3,340 방성현 3,570 배길택 2,000 배나현2,040 배지호 3,330 배효미 12,320 백인성 11,410 백종현 300 서민주 7,090 서예인 2,280 서정수 2,690 서지형 2,830 선우구 200 성예지 5,650 성천호 5,300 손간진 1,010 손건진3,450 손세빈 3,950 송수빈 590 신강윤 2,600 신소영 5,150 신지원 1,110 안다룬 8,750 안채림 1,950 안혜정 12,200 연동선 5,010 연재정 4,200 오명진 8,550 오수민 950 오수민4,940 유영순 7,670 유재선 4,030 유준석 20,000 유지은 6,870 유지희 1,420 윤선영 1,110 윤선호 12,070 윤소진 2,700 윤우림 6,000 윤중서 7,000 이가는 1,510 이경민 1,810 이경민 1,110 이기열 11,050 이다영 2,650 이동건 27,110 이동준 29,650 이동준선생님 50,000 이민희 18,150 이성균 2,830 이성민 31,840 이세정 5,580 이소정 150 이순복선생님 10,000 이슬기 300 이용재 6,200 이우창 520 이인화 3,350 이정근선생님 20,000 이주빈 8,540 이주성 1,100 이주현 2,540 이준오 11,010 이지음 14,020 이지훈 7,920 이진용 3,110 이채원 4,220 이혜림 4,940 이혜민 3,920 이홍준 2,310 임채린 7,780 장동건4,400 전미정 710 전인화 1,650 전혜영 8,500 정다운 4,610 정민 2,000 정민지 490 정석훈 3,000 정수빈 8,190 정유진 2,150 정주희 4,420 정지선 810 조경렬 4,390 조성원 5,080 조수아 670 조수연 2,700 조예은 2,890 조용석 6,530 조이란 17,310 조인태 10,660 조해빈 5,920 조효진 950 주나현 1,980 차미희 660 최고은 1,270 최문태 500 최서연1,070 최선 14,000 최승호 4,290 최유신 2,830 최지연 8,350 최진택 16,170 최한정 11,890 최혜운선생님 7,290 최효선 3,640 하승민 1,900 학생부 22,220 한수정 4,140 한정원 3,150 한혜진 3,310 허연무 340 홍민기 6,070 홍준호 2,970 환희원 1,510 환희원101,510 황민희 5,160 황익일 13,020 황익진 290 황인조 3,340 황혜원 22,000)
--

내서
서단 16,340 최태련 33,660 코오롱머니여사 49,210

달서
달서법당 139,870

대구
공연표 55,100 권오재 53,960 김동규 14,300 김미라 6,780 김순이 10,620 김순이2개13,780 김호권 33,440 류소정2개 40,600 무명 52,500 무명 14,520 무명 23,400 박강민27,930 박정미 21,540 백승민 6,840 백승민 14,400 송덕준 32,200 이현호 38,260 임금실56,310 지명자 13,420

대연
대연법당 95,290

대전
간략 37,960 김병철 18,010 김병훈 17,220 김복순 3,000 김연순 60,090 김영희 11,370 김영희 34,390 김일용 16,020 김정순 14,350 김채영 71,930 김태권 25,110 통촌한의원 77,660 무명 23,980 무명 34,550 무명 24,440 실성문 45,840 성재 19,520 송화준 153,940 신민철 35,600 안유옥 21,740 우삼이 30,670 유진우 75,990 이현정 11,270 전경숙 18,150 정영미 27,010 진복문 3,020 최민혜 23,020 탁건이 60,840 포미숙 38,360 하미숙 31,390

동래
김기현 29,180 김미라 26,150 류숙희 37,120 무명 44,290 무명 225,640 무명 32,830 박상우 18,370 박성호 17,100 배경자 16,580 서경선 17,330 손진길 101,000 신세영 20,000 이니극 43,610 이상훈 24,450 이새벽 19,400 이주경 10,000 이주경 10,000 이준근 7,680 이향숙 25,750 황혜선 18,680

마산
고지원 30,480 김다숨 26,450 김동현 21,560 김지연 20,620 무명 21,800 무명 11,440 박삼숙 36,810 정선우 15,470 정지혜 23,990 천영희 31,430

마포
마포법당 34,860

문경
권정화 17,650 조명희 23,250 최유근 36,590

분당
강진성 33,240 강진성 29,870 김혜경 22,250 무명 2개 99,400 백분득 19,740 최영리46,360 최익태 40,470

서초
고은설 25,140 권유선 16,570 김대현 9,600 김정옥

21,660 김지성 21,040 김현주 13,550 무명 269,920 문지환,문재원 51,370 박영만 34,020 박영주 18,990 박정아 22,800 박정아, 박경리, 박경태 10,550 방봉준 22,920 방호준 21,220 성경희 34,330 성창희, 성인희 17,630 심마숙 28,520 예당온라인 25,920 유현수 46,270 이명숙 36,340 이순열 24,780 이울 59,490 이정선 46,020 정성채 32,950 정승우 23,500 천인근 44,570 한화정 19,220 황인복 46,800 GS25서초유원점 12,660

인양
임봉순 17,420 무명 22,270 손영미 28,780 손영미 16,710 이광민 22,030 이진화 24,910

영주
김수,이정자 58,800

영천
정명옥 85,670

울산
김숙자 40,660 김영애 24,990 김윤경 90,000 김윤경 129,370 무명 27,230 무명 16,710 박은선 11,400 박은정 28,420 서중석 19,530 산수복 12,610 신현철내과 50,120 심숙희40,600 양승돈 34,350 여승진 276,280 울산법당 540,490 최명숙 24,840

일산
일산법당 435,260

제천
김광호 74,100 김애자 27,420 박경애 140,640 박형숙 30,530 정두명 32,040 조하늘21,980 황보미 2,510

창원
창원법당 25,450

청주
박노옥 25,310 정경희 15,970 조은정 35,050 조창금 16,850 조태진 55,480 청주법당 382,970

평택
등식초4-3 15,100 등식초4-3 16,750

포항
강순남 11,650 구정희 18,100 구준엽(공경의) 30,800 황덕훈 24,750

해운대
서지희 22,930 무명 57,590 신경미 19,620

화봉
화봉법당 143,700

기타
고경희 26,570 고경희 34,520 김마숙 24,300 김은숙 66,780 김태호 42,000 박은주100,680 유명 이 24,630 유병국 71,510 이경준 142,190 이진희 39,450 이현정 30,900 장지혜 78,780 정연권2807 82,390 최옥분 24,870 춘천익명 57,280 한승명살래 108,220 한승명살래 7,270 한승명살래 63,710 한진범 11,500

거리 모금 현황

2014년 06월 01일부터 2014년 07월 31일까지
강화서포터즈 1,019,800
강희석 381,570
거제 268,500
광명 61,340
교사멘토링 198,000
구미 1,036,770
국민은행강남대로지점 161,230
김해 352,270
내서 157,000
노원 412,040
달서 264,710
대구 2,143,930
동래 204,850
마산 533,030
마산희망강연 190,000
부천 267,550
분당 240,350
서울정토회 300,000
서초 1,015,510
성동 157,400
손인권 30,000
수원 237,290
순천 110,000
양산 50,000
양천 409,250
여수 232,200
영주 185,550
용인 398,950
울산 241,760
일산 179,370
일산서포터즈 171,020
입재시대중북지부 264,000
전주 299,610
창원 873,070
태전 115,060
포항 1,574,670
해운대 319,43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자원봉사 문의 02)587-8756



해외 자원봉사를 경험하세요

교육, 의료, 마을재건에 따뜻한 손길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손길들이 모여 만드는 나눔의 현장에 함께해 주세요. 해외봉사 분야 : 건축, 농사, 회계, 의료, 언어, 교육 등

국내 자원봉사에 함께하세요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 나눔회원활동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JTS 나눔기금 문의 02)587-8995



나누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으로 함께하세요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계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